

## 캠프X사회적경제 톨아보기 2강 강의록

강의 주제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 자	2023. 06. 16 (금)	강사	Laurence Kwark
시 간	19:00 - 21:00 (2시간)		전 GSEF 사무국장
강의 내용	<p>※ 강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 송부한 강의자료 참고</p> <p><b>II 국제 사회는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b></p> <p>■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사회연대경제 정의 및 최근 동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NTFSSSE - 비공식 T/F(Task Force)</li> <li>2) ILO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li> <li>3) OECD -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li> <li>4) 유럽연합 - European Social Economy Action Plan</li> </ol>		
질의응답	<p><b>질문 1. 국제기구의 결의안과 권고안 모두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국제적 흐름이 사회연대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연대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의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존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연대경제에 몰아주는 분위기, 마치 사연경을 최상의 목적으로 상정하면서 자신들의 노력을 회피하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b></p> <p>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조직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전환 이전에 우리 일상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각자가 노력하면서 담당해야 하는 실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p> <p>기존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 경제에 몰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작은 목소리로 계속 힘을 내고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하게 다루고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사실, 사회적 경제의 활동가들이 겸손하고 조용히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협업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 가능성이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첫 발자국을 떼는 것입니다.</p> <p><b>질문2. 한국에서도 한동안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붐을 일으키면서 '관(정부) 주도'의 흐름이 형성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b></p>		

정부는 강제적 집행력을 지니고, 시장은 경제적 이익을 강력한 도구로 삼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구체적인 추진동력은 자발성, 당위, 인간성에 기댄다고 이해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이기만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연대경제의 몇몇 성공사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추진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와 연계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발 맞춰 270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적 지형도가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도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들이나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전시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숫자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양적인 성장과 빨리 성과를 내는 분야에 집중했다면, 사회적 경제는 몇 년 안에 빨리 보여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경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가치 변화로 원칙이 실행되고, 현장에서 검증되고, 그것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입증하는 것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사회적 경제의 정책과 활성화를 추진한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지, 사회적 목적을 잃지 않는 사회적 기업들과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역과 지역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 같은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이 매체들에 도전했다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사회적 경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 동력은 정책이나 정부,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나눠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세요. 대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과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정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사회연대경제에서 최소한 각자의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가면 이해관계자들부터 인정받는 주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질문 3. 개인적으로 사회연대경제는 포용과 상생의 경제 체제라 생각하나, 사회연대경제가 속해있는 경제 생태계는 제로섬(zero-sum)게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각에선 기존 경제 체제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연대경제의 효과성을 미미하게 평가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적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평가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나, 자본을 만들기 위해 '자본을 모아야 하는' 기존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회연대경제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사회연대경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최근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연구 자료나 개별적 성공사례가 없고 5년 전 혹은 10년 전의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꾸준히 새로운 사례들과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미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협업과 연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지식이나 과학적·기술적 도구와,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석·박사 과정, 교수와 같은 연구팀은 사회적 경제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유행처럼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정책적으로 주목을 받으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원칙과 논리로 있는 것이 아닌, 실재하고 시민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증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이 공유되고, 분석하고. 배워서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또 다른 형태로 자본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은 연대기금에서 공동으로 조직해 운영하는데, 유럽은 약 13개국에 윤리적 은행 연합체가 있습니다. 윤리적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맡길 때 본인의 예금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사회적·환경적 목적으로 필요한 곳의 재투자에 참여합니다. 유럽은 이러한 윤리적 은행 연합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단 한 개의 윤리적 은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가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변화를 연구자들이 통계자료로 나타내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점은 일반 자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부터 다른 트랙에서 다른 가치를 지닌 '협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와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실제 경제와 상황에서 영향력으로 검증되는 사례로 만들어가야만 살아있는 경제가 됩니다. 이 노력이 금융과 자본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필요로 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먼저 뛰어들어서 새로운 우수사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4. ESG와 연계해 사회연대경제에 일정 부분 투자하게 하는 논의도 있을까요?**

현재 ESG와 연계해 사회연대경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사회연대경제들이 파트너십을 맺거나, 대기업 산하의 재단들이 사회연대경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택 같은 사회서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들이 많지만, 이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기업들의 성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파트너들과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5. 이전에 남아공 아디스아바바에서 사회적기업월드포럼에 참여했었는데, 당시 남아공의 사회적기업 숫자와 종사자를 거의 대부분 국가의 기업 통계처럼 얘기해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고용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하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조직들에 대한 정부의 통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분리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전환하는 기업들을 통계에 포함합니다.

한국은 인증제도가 있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계가 명확합니다. 인증제도가 신고제도 등 아무런 제도 없이 기관, 자조 단체, 재단 혹은 NGO들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ILO, 유럽연합, OECD도 통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질문 5. 감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고민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 과중한 업무와 과로에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꼭꼭 감춰놓지 말고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항상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어떤 정책적 변화와 동료 단체들의 역할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계속 분석해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정책과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역량 강화가 학위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